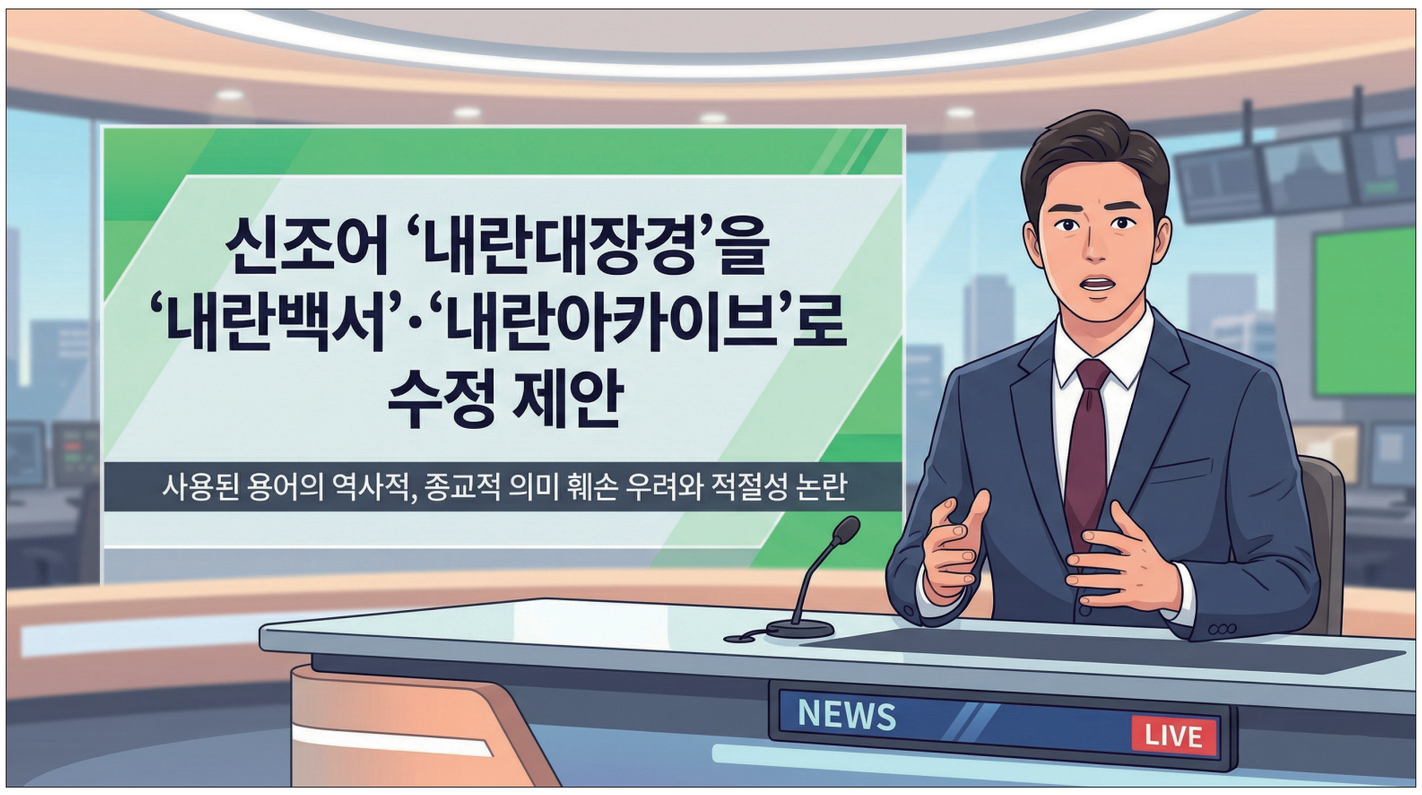
본질 왜곡 넘어 신성 모욕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③ 그것은 대장경이 아니다:
이름의 무게를 잃어버린 사회



'내란'과 '대장경'의 결합은 의미론적으로 심각한 부조화를 낳는다. '대장경'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해답이라면, '내란'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낳은 병증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합은 언어적 무리수이자, 경외심을 저버린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내란대장경' 표현에 당혹감 넘어 불쾌
대장경, 인간 존엄 회복 위한 삶의 지도
무분별 사용에 신성과 깨달음 의미 휘발
일자삼배 정성·경외심 저버린 경솔 처사
'백서', '실록', '아카이브' 등으로 충분해

차마 마주하기 힘든 이름

최근 인터넷 공간에 등장한 '내란대장경'이라는 이름을 보고 잠시 내 눈을 의심했다. '대장경이 왜 여기에?' 위화감은 곧 당혹감으로, 그리고 결국 불쾌감으로 번졌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계엄'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기록을 모아, 망각에 맞서겠다는 운영자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 공익적 취지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성스러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만약 불자들이 느끼는 이 불쾌감에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면, 단어를 살짝 바꾸어 상상해 보자. 거룩한 제단 위에 온갖 고소장과 판결문을 수북이 쌓아 두고 '내란 성경'이나 '내란 코란'이라 부른다면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은 말의 본질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신성(神聖)에 대한 심각한 결례나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개의 바구니'가 담아낸 보물

'대장경'이라는 명칭은 오래전 인도에서 쓰이던, '세 개의 바구니'를 뜻하는 '트리피타카(Tripitaka)'에서 비롯됐다. 이 세 개의 바구니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뉘어 담겨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 주는 부처님의 말씀 '경(經)', 대중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 '율(律)',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풀어 정리한 사유의 결실 '론(論)'이다. 이 세 요소를 한데 모은 대장경은 인류가 쌓아 올린 중요한 지적 성취다.

따라서 대장경을 단순한 기록의 집적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장경은 인간이 어떻게 번뇌를 끊고 존엄을 회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탐구해 온 '삶의 지도'이다. 그럼에도 이 이름을 세속적 사건에 무분별하게 덧붙이는 것은, 지혜의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을 빼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

기만적이고 모순적인 결합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의미의 확장'이나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용은 진화라기보다 오히려 퇴행에 가깝다. 단어가 지니고 있던 정신적 함의는 지우고 '방대한 양'이라는 외형만 남겼기 때문이다. 영적 지혜를 담아내던 단어를 단순한 저장소의 의미로 축소하는 것은 언어의 품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란'과 '대장경'의 결합은 의미론적으로 심각한 부조화를 낳는다. '대장경'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해답이라면, '내란'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낳은 병증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독감 환자 명단과 발병 기록을 모아 놓은 문서에 '독감 치료제'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파괴의 기록에 '창조의 성전'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결합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억지로 결합한, 언어적 무리수에 불과하다.

선량한 의도라는 함정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만나는 통로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의 의도'가 아니라 '수용자가 경험하는 결과'다. 누군가 그것이 호의나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이나 모욕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폭력으로 기능한다. 말의 무게도 던지는 이의 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낸 이의 고통으로 측정된다.

우리가 최근 '결정장애', '미망인', '처녀작' 같은 단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용을 자제하려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 무심코, 혹은 좋은 뜻으로 썼더라도 그 말이 어떤 이에게 모욕과 불쾌감을 줬다면 그 사용을 멈춰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대장경'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행위도 다르지 않다. 공익적 의도를 내세운다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온 거룩한 경전을 범죄 기록물에 함부로 쓰는 일은, 그것을 신앙의 결정체로 수호해 온 이들에게 '언어적 실례'가 된다. 받아들이는 이가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 이미 '나쁜 말'이 된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안에 보관돼 있는 팔만대장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단어 하나가 부른 비극

누군가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는지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언어학자 벤저민 리 워프가 소개한 사례는 단어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다. 한때 화재 조사관이었던 그는 정유공장에서 반복되는 폭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휘발유를 담았던 드럼통 근처에서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운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그토록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바로 드럼통에 적힌 '빈 통(Empty Can)'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사람들에게 '비어 있다'는 말은 곧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그 안에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작 '빈(Empty)'이란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상황 인식을 왜곡했고,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폭발로 이어졌다. 이처럼 언어는 현실 인식을 규정하는 틀로 작동하기도 한다.

'내란'과 '대장경'의 결합 역시 마찬가지다. 자극적인 효과를 위해 고귀한 이름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순간, 대중의 무의식 속에서 '대장경'이 지닌 깨달음과 신성의 의미는 서서히 휘발된다. 무심한 단어 하나가 정유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듯, 가볍게 오용된 이름 하나가 수천 년간 가꿔 온 '지혜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수행으로서의 언어, 도구로서의 정보

팔만대장경은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세 번 절하는 '일자삼배'의 정성이 깃든 수행의 산물이다. 이는 단순히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고통을 보듬으려는 실천과 자비의 언어 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기록물의 언어는 복사와 붙여넣기, 수집과 배열의 반복 속에서 타인의 과오를 드러내는 쪽으로 쉽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둘은 그 지향과 층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대장경 이미지와 번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사이트가 '아카이브'라는 중립적 명칭을 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편의상 '온라인 대장경'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 표현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대장경'이라는 이름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과오를 축적한 기록에 '대장경'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일은 경외심을 저버린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름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빛나는 진실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기록의 가치는 그에 상응하는 명칭을 가질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공적 조사라면 '백서', 사실 기록이라면 '실록', 혹은 '아카이브'나 '총서'와 같은 표현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굳이 '대장경'을 차용하는 것은 단어의 권위를 빌려 의미를 과장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대장경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법의 등불이지, 세속의 과오를 판별하는 도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시비를 전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면, 그 이름 또한 그에 합당해야 한다. 고귀한 것은 고귀하게 대우받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 그때에야 기록을 남기려는 이들의 진심과 사회의 품격 또한 함께 지켜질 수 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특허 성불타올
40×80cm / 160g / 30수 / 6,000원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 644-1102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